

명실상부한 출판계의 '대상大賞'을 꿈꾸며

제1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지난 달 1일,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출판문화대상의 각 부문별 수상자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문화일보, 한국출판경영자협회가 제정한 제1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선 (주)한솔교육(대표 변재용)의 《리듬그림책 재미모리 동동》이 대상을 받은 데 이어, 기획·편집부문에서 《소설 삼국지》((주)교원·대표 장평순), 일러스트레이션부문 《우리 옛 이야기》((주)두산동아·대표 최태경), 저술부문 《교과학습 순수창작동화》(한국테카르트, 대표 김운호), 번역부문 《디즈니 세계문화기행》((주)한국DSM·대표 최석암) 등이 각기 상을 받았다. 또 《한국 근대여성의 일상문화》(국학자료원·대표 정찬용)와 《한국생활사박물관》((주)사계절출판사·대표 강광실)이 공동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한국출판문화대상은 우수한 출판물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의욕적으로 양서를 만들고 선진출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상작 결정에 앞서 각 분야별로 2~3명의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2차에 걸친 부분 및 전체 심사를 거듭한다. 이번에 90종 3,447권의 후보도서 중 대상으로 선정된 《리듬그림책 재미모리 동동》은

입체적인 기획과 편집, 정교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쇄매체의 한계를 넘어 영상매체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출판경영자협회 백좌현 회장은 특히 대형 기획출판물이 많이 뽑힌 데 대해 “이들은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소요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탓에 시장 영역이 넓지 못해 현실적으로 다른 출판분야에 비해 수상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기년도부터는 대형 기획물뿐 아니라 일반 단행본을 포함한 출판의 전 범위를 아울러 시상 내용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 회장은 “일반 단행본에 비해 전집류의 경우 아이템의 개발이 더디고 삽화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를 극복함으로써 창의적인 기획이 돋보이는 대형출판물 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선정 분야가 한정되고, 홍보 또한 미흡해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일각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에 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한국출판문화대상이 출판계 중흥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선진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대상받은 (주)한솔교육(대표 변재용)

|(주)한솔교육은 유아교육 시장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1991년 이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제품개발로 오늘날 유아용 교재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 대상을 수상한 《리듬그림책 재미모리 동동》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것을 알게 해주자는 의도로 기획돼 제작기간만도 3년이고 200여 명이 참여해 2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우리 정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림책을 위해 글과 그림, 국악을 결합하고 아이의 관심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감성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그림책과 놀이를 결합한 '조작 놀이책'의 형태로 책과 친숙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 변재용 대표(사진왼쪽)는 수상 소감을 통해 “출판문화대상 첫 회에 상을 받게 됨으로써 출시 2년 만에 비로소 보상을 받은 느낌”이라며 특히 “출판보다 어린이 교육사업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출판사업을 계획, 준비하고 있던 중에 큰 상을 받게 돼 감사와 함께 자성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판계 진출에 대한 격려로 여기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출판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